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1호 【루계 제25780호】 주체106(2017)년 9월 2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미제의 종국적 멸망을 위한 총결사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떨치자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안남도, 황해남도, 량강도, 남포시군중집회 진행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백승을 떨쳐가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세계최악의 깡패국가 미국을 가차없이 징벌할 천만군민의 보복의지가 하늘에 닿고있다.

반제자주의 성새, 사회주의강경보루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책동에 매달리다못해 우리 국가와 전체 인민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미국양키들의 광기어린 돌무짓음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마다에 날강도 미제와는 오직 총대로 결산해야 하며 싸우면 마지막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게 제풀이 쓸어버려야 한다는 멸적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고있다.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안남도, 황해남도, 량강도, 남포시군중집회가 2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집회장들은 조선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피맺힌 원한을 남긴 가증스러운 미국놈들의 최후발악적인 침략책동을 전민항전으로 짓뭉개버리고야말 참가자들의 혁명적기상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집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미제를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하였다.

집회들은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도당위원회 위원장 박태성동지가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강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봉, 로농적위군 지휘관 한금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명호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은 미제살인악마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치솟는 증오를 그대로 반영한 서리발치는 노성이며 불의에 타협을 모르는 자주적인민의 정의의 보복선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허장성세하며 끝수없이 날뛰는 포악무도한 미국놈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시는 강철의 령장께서 제시여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무서울것도 없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향해 폭풍쳐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수뇌부보위를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비상한 각오와 의지로 평남땅을 수령절사옹위의 요새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력과 석탄, 비료,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농적위군 부대들이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피끓는 청년전위들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처럼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하며 과감한 공격정신과 피끓는 청춘의 기백으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박영호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무위원장 박태섭,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로농적위군 지휘관 김성구, 해주시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영원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무지무도한 미국의 정치불량배의 폭언은 온 행성을 경악케 하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피끓는 청년전위들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처럼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하며 과감한 공격정신과 피끓는 청춘의 기백으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박영호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무위원장 박태섭,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로농적위군 지휘관 김성구, 해주시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영원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무지무도한 미국의 정치불량배의 폭언은 온 행성을 경악케 하고있으며 인디안의 피바다우에 악의 제국을 만들어낸 식인종들의 포악성과 잔인성, 침략성이 어떤것인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존엄높은 주권국가를 《완전파괴》하겠다는 미국놈들의 천인공노할 광태는 우리의 막강한 위력을 반증해주고 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길이 절대적으로 옳았고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명명백백히 확증해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불장난을 즐기는 전하의 불망나니, 깡패무리들이 세기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압살야망을 만천하에 적라라하게 드러낸 이상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악의 원흉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절사옹위에 만미대결전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와 우리 제도를 노리는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로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리며 애써 마련한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임으로써 적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로농적위군 대원들이 분계연선지대의 특성에 맞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며 최고사령부의 붉은 신호탄이 오르면 미제를 박멸하는 최후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원쑤의 아성을 재가루로 날려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동맹원들속에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모든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만일 미제가 우리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신천땅의 피의 복수전에서 원쑤격멸의 돌격로를 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리상원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오정덕,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 로농적위군 지휘관 고명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최경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깡패국가가 있는 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조국과 인민, 력사의 이름으로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악마의 무리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해버릴 멸적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성명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늙다리미치광이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것이며 수령의 부름따라 천만군민이 총궐기하여 만미대결전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며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기 위한 거창한 사업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이 백두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1950년대의 군자리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자력갱생의 대고조폭풍으로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정수리를 호되게 후려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원쑤격멸의 총포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홍단군, 백암군을 비롯한 감자산지들에서 대풍을 안아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농적위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최후결전의 시각이 닥쳐오면 항일의 나날 유격구방위자들처럼, 전화의 영웅들처럼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것이라고 말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는 날강도 미제를 박멸해버릴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470여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 인민군대입대, 복대 탄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완전파멸》시키겠다고 함부로 제쳐대며 최후발악하는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수령보위, 사회주의수호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이 발표된 후 6일동안에 전국적으로 47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참군열풍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얕애보려고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 미친개무리를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불로 다스리고야말 강용한 우리 인민의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한 만리마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천만의 가슴가슴을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활활 불태워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반미최후성전의 앞장에서 총궐기해나섰다.

전국각지의 청년학생들은 모임을 열고 《위대한 령장께서 천쑤격멸의 뢰성을 울리셨다》, 《500만개의 폭탄을 터뜨려 악의 제국 미국을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자!》, 《부나비처럼 해덤비는 미국미치광이들을 모조리 박멸하자!》라는 글들을 인민군대입대, 복대탄원서마다에 써넣으며 조국보위에 앞을 다투어 떨쳐나섰다.

조국땅 방방곡곡의 일터와 교정마다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 청년학생들은 179만여명에 달한다.

력사적인 성명발표후 3일동안에만도 평안북도에서 12만여명, 황해남도에서 9만 7,000여명의 근로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것을 비롯하여 미국양키들의 무모한 침략전쟁광기를 단호히 짓뭉개버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청년들의 탄원열풍은 날을 따라 고조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 황남공업대학 등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수많은 학생청년들이 당과 수령에게 다진 맹세를 지켜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니였던 결사의 조국수호정신을 안고 혁명의 군복을 입을것을 결의해나섰다.

반미총결사전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각지에서 열린 청년학생들의 탄원모임들에서는 철천지원쑤 미제와 기어이 결판을 내고야말 열혈의 복수자들이 터치는 멸적의 함성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청년탄원자들의 가슴마다는 백두밀림에서 포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혁명선렬들과 미제의 기만한 코대를 찌어버리고 7.27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페지를 보기 좋게 써줄 전투적기상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각계층 근로자들도 력사적인 성명에 접하자마자 2,500만 우리 인민의 절멸을 꿈꾸는 극악무도한 양키무리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격분으로 치를 떨며 마치와 낫을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바꾸어 들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열의드높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전국의 로동계급은 우리 당이 대사변개시명령만 내리면 즉시적인 징벌타격전의 선두에서 철의 대군단이 되여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물론 태평양건너 미국본토의 씨종자들까지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백악관의 정신병자가 유엔무대에 불에 뚜기처럼 뛰여들어 떠벌인 그 무슨 《완전파괴》망발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사회주의협동벌의 농업근로자들은 용약 결전장으로 달려나가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무리들을 서슬푸른 총창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을 결의해나섰다.

우리의 녀성들도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가정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치광이무리들에게 참혹한 죽음과 파멸을 안길 복수의 일념으로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으며 그 수는 날로 늘어나 122만여명에 이르렀다.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지니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보금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반미결사항전에 총궐기해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이 행성에 온갖 불행을 몰아오는 악의 총본산인 미국을 지구상에서 초토화해버리고 최후승리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려갈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인민보안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인민보안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지니고 압록강체육단 축구심판원 장명진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정성을 기울이였다.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인민보안원 리진철은 만수대언덕과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게 모시는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며 충정의 가풍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지도원 양순금은 언제나 만수대언덕을 뜨거운 심장속에 안고 살며 불타는 충정과 지성을 다해가고있다.

지도원 리인옥도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더욱 강렬해지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잘 모시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을 혁명적의무로 간주한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소장 리대군은 온 가족의 지성이 깃든 후방물자들을 삼지연군에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북청군 일군들과 과수농장 종업원들은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성의껏 마련한 사과를 당의 병진로선관철에 헌신하고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보내주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새겨갈 마음안고 묘향지도국 산하단위 지배인 김수경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증설공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헌신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는 북창군체신소 송남체신분소 로동자 고은경도 발전설비증설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인민보안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2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 단장인 빅또르 마누엘 루까스 중앙위원회 국제비서가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몽골에서 진행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가 18일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몽골주체연구쎈터,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와 로씨야,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 주체사상신봉자들,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라고 하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때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공화국이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으며 조선반도지역에서의 력량관계,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조미대결의 최후승리,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전망이 펼쳐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나선다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70돐 기념보고회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 청진화학섬유공장, 도정보통신국, 경성군 등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들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주체36(1947)년 9월 도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진제철소(당시), 성진제강소(당시), 청진제강소를 찾으시여 새조국건설에서 철강재생산기지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진방적공장(당시)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나라 섬유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공장을 복구하여 더 좋은 실을 뽑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진전신전화소(당시)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당과 국가는 전신전화소를 통하여 나라의 여러 부문 사업을 직접 장악하고 지휘한다고 하시면서 전신전화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성군안의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고 군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도안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지난 7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기며 주체철을 비롯한 철강재생산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진화학섬유공장, 도정보통신국 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생산과 정보통신보장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꾸려진 김정숙료양소, 온포휴양소들에서 관리운영을 짜고들어 근로자들의 휴양과 치료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수산부문에서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공민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한 자력갱생대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미제의 종국적 멸망을 위한 총결사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떨치자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안남도, 황해남도, 량강도, 남포시군중집회 진행

1면에서 계속

연설자들은 청년전위들이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남포시에서

남포시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강양모 시당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구동춘,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길춘, 로농적위군 지휘관 차기남, 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혁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르는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심장깊이 쪼아박고 가증스러운 미제를 죽탕쳐 파멸의 구렁텅이에 쓸어넣기 위한 결사항전에 과감히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투장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눈부신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적들의 악랄한 핵전쟁도발과 제재봉쇄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농적위군 대원들이 수도의 관문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적들의 그 어떤 침략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로 자라난 청년전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주체의 청년강국의 필승의 기상과 본때로 침략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들은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전체 시위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 끝까지 결판을 낼것이다!》를 비롯한 구호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과 선전화 등을 들고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광장들과 거리들에는 존엄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을 괴멸시키려고 지랄발광하는 날강도 미제를 쓸어버리고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말 시위참가자들의 멸적의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량강도, 남포시군중집회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한길로 폭풍노도쳐나아가며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불가항력적위력을 만방에 떨쳐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간다

철의 기지에 흐르는 불의 대하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의 기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불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친다.

유엔무대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 트럼프의 정신병적인 광태에 접한 황철의 로동계급은 미제의 대갈통에 쇠몽둥이를 들씌울 멸적의 의지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강직장과 용광로직장, 강철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일터마다 원쑤격멸의 열기로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우리 인민을 전멸시키겠다는 망발을 줴쳤다는 소식에 접한 용광로직장 로장 리니원동무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대갈통에 쇠몽둥이를 들씌워 형체도 없이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의 말에 호응하듯 산소열법용광로에서는 또 한차지의 출선작업이 진행되였다. 출선구를 따라 쇠물이 팔팔 쏟아져나왔다.

용광로의 숨결이자 조국의 전진속도이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용광로직장의 용해공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에 접한 그날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치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계획보다 더 많은 쇠물을 뽑아냈다. 직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은 교대당 원료장입과 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계속 높이고있다. 조절작업반장 김인철동무가 원료, 제진, 압축기작업반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로조종을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을 때 로체1교대작업반장 차광혁동무는 출선작업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쇠장대를 용대마냥 으스러지게 틀어쥔 용해공들은 미제와의 총결사전에 나선 심정으로 로의 가동상태를 예리하게 감시하고있다.

조강직장에서도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압연공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가열로와 압연로를 정비보수하고 우리 국가를 없애겠다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제를 압연기로 밀어버리는 심정으로 중량레루생산에서 련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마감공정을 맡은 운전공들도 트럼프의 목을 당장 절단기로 잘라버리겠다고 욱욱 벼르면서 절단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도 미제와의 총결사전에 떨쳐나섰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마구 짖어대는 경악스러운 망동에 격분한 이곳 용해공들은 초고전력전기로보수가 제기되자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에 달라붙었다.

지난 시기같으면 며칠은 걸려야 할 작업량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미제가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겠다고 덤벼드는 이 시각 로를 세워둔다면 어찌 우리를 황철로동계급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뽑아야 나라의 강철기둥이 굳건해진다고 하면서 분발해나섰다. 그리하여 직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은 로보수시간을 훨씬 앞당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이 나래치고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울리는 속에 초고전력전기로는 몇시간만에 커세찬 동음을 드세차게 울리였다. 얼마후 초고전력전기로에서는 잘 익은 쇠물이 쏟아져나왔다.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철강재증산의 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금 특파기자 신경섭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증산의 동음 힘차게 울리며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다.》

우리 국가와 전체 인민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줴친 미국집권자의 천인공노할 망발은 지금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을 치솟는 적개심과 보복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당장 때려죽이자.

이번 기회에 쓴수없이 날뛰는 미국놈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악의 총본산을 없애버리자.

그 어느 직장, 그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에 대한 분노가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와 만난 련합기업소지배인 리상천동무는 미친 불망나니의 천인공노할 궤변에 온 기업소가 아니 온 강토가 무섭게 노호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대미문의 제재를 가하다 못해 감히 우리 공화국을 피멸시키겠다고 줴친 트럼프야말로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불망나니이며 이런자는 반드시 불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한 일군만이 아닌 련합기업소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미치광이 트럼프놈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분노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증산돌격전으로 이어지고있다.

주강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늙다리 트럼프놈을 유도로에 처넣어 불태워죽여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한달동안에 해야 할 일을 6일만에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하루동안에만도 31차지의 쇠물을 뽑아내여 최고기록을 돌파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결과 긴장하게 제기되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크링카분쇄를 제때에 하여 세멘트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였다.

석회석과 석고, 점판암보장을 맡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크고작은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설비리용률을 높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원료보장전투에서 련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생산의 심장부인 소성로를 지켜선 소성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고 한 트럼프놈에 대한 치솟는 분노심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조종직장은 물론 생산의 마지막공정인 세멘트직장에서도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국가과학원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내화물분공장의 소성로에 온도수감장치를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소성온도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결과 내화벽돌의 질이 훨씬 개선되여 크링카소성로의 수명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세멘트직장의 감속기진동을 줄이는데 힘을 넣었다.

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필요한 가공물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대형감속기진동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9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가는 증산의 동음, 그것은 하늘에 닿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보복열기이며 위대한 병진의 힘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질풍노도치며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상이다.

특파기자 오철훈

단천발전소건설장에 수백대의 광차를

신의주광산기계공장에서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신의주광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불길높이 광차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난 8월 21일까지 수백대의 광차를 생산하여 단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준 기세로 계속 힘찬 전투를 벌려 년간 광차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단천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단천발전소건설은 공사량이 방대하므로 발전소건설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야 합니다.》

단천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은 정안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광차를 제기일에 무조건 생산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우학명, 강성찬, 방남두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매기있게 해나갔다.

온 공장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날마다 위훈이 창조되였다.

선행공정을 맡은 주물직장의 용해공들인 리태용, 한금철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자강력으로 뚫고나가면서 매일 10~12차지의 쇠물을 뽑아 광차바퀴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고속도굴진기직장에서는 가동하지 못하던 10여대의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개조 및 수리정비하고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제관직장 로동자 리련식동무는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불같은 열망을 안고 만리마를 탄 기세드높이 매일 10여대의 광차적재함을 용접하는 위훈을 세웠다.

공구직장의 허영만, 고속도굴진기직장 차용철, 청년직장 박창범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광차축가공과 광차바퀴가공 및 조립계획을 매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제관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안해들은 후방물자를 안고 남편들이 일하는 현장에 달려나와 광차생산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자강력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면서 광차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겨주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백대의 광차를 생산하여 단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그 기세로 힘찬 돌격전을 벌려 년간 광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청춘과원에서 사과따기 한창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 요즈음 사과따기가 한창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춘과원으로 전변된 과수농장에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였던 못 잊을 그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사과따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이며 전국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주체100(2011)년 5월과 10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한해에만도 몇소 두차례나 룡전과수농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해주시고 과일대풍을 안아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 품종의 과일나무재배기술을 더욱 완성하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과일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군당위원회와 군과수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년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허명옥, 서기철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올해농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들끓는 전투장에 나간 일군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땅다루기와 거름주기, 가지자르기와 열매솎아주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마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여러가지 효능높은 생물농약을 자체로 생산리용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는데 힘을 넣었다.

1월의 대소한의 추위도, 삼복철의 뜨거운 열풍에도 아랑곳없이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며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든 보람이 있어 과원마다 흐뭇한 사과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포전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 풍요한 작황을 마련한 작업반장 주제록동무를 비롯한 과수제4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이 사과따기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과수제3작업반과 과수제6작업반, 청년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도 사과따기실적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망발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기계화작업반 뜨락또르운전수들은 알알이 정성들여 수확한 사과가 상하지 않게 과일보관고로 제때에 실어나르고있다.

농장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과일가공공장에서 사과즙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다그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정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사이의 회담 진행

【평양 9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비또르 마누엘 루까스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사이의 회담이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리수용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해 통보하고 반제자주의 리념밑에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비또르 마누엘 루까스국제비서는 에스빠냐인민공산당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조선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에스빠냐인민공산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낸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리영철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 성원이 참가하였다.

대오의 기수가 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2.8직동청년탄광 공무직장 압연작업반 반장 오광환동무와 제관작업반 반장 라정남동무는 종업원들속에서 일욕심많은 작업반장, 없어서는 안될 직장의 보배로 정답이 불리우고있다.

오광환동무가 작업반장사업을 시작하던 20년전까지만 해도 압연작업반 생산설비들의 기술상태는 시원치 못했다. 며칠동안 작업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오광환동무는 작업반원들과 함께 자체의 힘으로 압연롤과 가열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머리를 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일터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작업반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솔선 앞채를 메고나섰다. 그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집체적협의를 거듭하여 압연롤의 기술적특성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전기와 석탄소비를 훨씬 줄이면서도 소재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2배로 높여 해마다 작업반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자기 힘이 제일이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쟁기풍은 제관작업반 반장 라정남동무의 일본새에서도 똑같이 찾아볼수 있다.

라정남동무 역시 20년동안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다.

그 나날 그는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어려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탄광의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갱내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데서 작업반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그는 작업반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갱내장거리벨트콘베아의 원통바퀴와 송풍기, 탄차와 탄차전복기, 철판조구 등 석탄생산과 운반설비제작에서 제기되는 제반문들을 척척 만들어냄으로써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하키에 이끗 공무직장 종업원들은 이들 두 작업반장을 가리켜 쌍둥이작업반장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본사기자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된 영예와 긍지안고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

미제의 로악무도한 강권과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앞장에는 우리의 미더운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서있다.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켜 전민총결사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학습강사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을 비롯한 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부장 전동남동무는 지난 15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학습하고 위대성교양자료를 비롯한 5대교양자료와 상식자료 1800여건을 카드화, 직관화하여 강의에 리용함으로써 실효를 높였다. 부서의 특성에 맞게 강의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하여 나서는 실천적문제들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으며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수대대기념비에 대한 해설강의를 진행하여 그들이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평성시 삼화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양인철동무는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은 단위의 학습강사라는 책임감을 간직하고 지난 25년간 강의에 앞서 학습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먼저 전달하는것을 생활화하여 학습반성원들이 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였다. 수백건의 위대성교양자료를 일별, 월별로 카드화하여 교양사업에 리용하고 강의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습반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해마다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알곡과 남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잠업비단공업국 기술준비소 실장 박정심동무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며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여왔다. 그 나날 1만 5천여건의 위대성교양자료들과 각종 과학기술자료, 상식 등 수만건의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강의에 적극 리용하였다. 어려 단위에 찾아가 필요한 자료들을 마련하면서 출연제강을 틈들여 작성하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 강의에 출연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학습강사사업은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라는 높은 자각과 당적량심을 지니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학습강사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갔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우리 학습강사》, 《우리 실장》으로 불리우고있다.

평성석탄공업대학 과장 류광성동무는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지난 22년간 위대성교양자료 370여건, 상식자료 6천여건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을 발취 및 수집정리하여 강의에 리용하였다. 문답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강의에서 주입식, 질기전달식방법을 극복하고 재우쳐주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120여개의 교실들을 다기능화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평양철도종합대학 강좌장 김순희동무는 지난 21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하면서 5대교양자료와 과학기술자료,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성과자료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과 속담, 유모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의를 이야기식으로 구수하게 잘 함으로써 청강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의에서 전자다매체편집물을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강의를 다매체편집물을 만들어 진행함으로써 인식의 효과성을 높이였다.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김룡진, 중구역인민병원 의사 최학명, 신의주시당학교 교원 박춘근, 단천시 삼거협동농장 기술원 박용선동무들이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대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의 영예를 지닌 이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활동에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

우시군 가하리당위원회에서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의 시각이 눈앞에 다가온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생활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들에서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소개한 도서와 당보 등 출판물을 가지고 독보와 해설모임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3대혁명붉은기 제2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배울 권리가 있고 치료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권리를 보장받고있는데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며 깊이있게 해설해주었다.

리당일군은 오늘과 같이 우리 조국이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당 병진로선의 불패의 생활력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라고 원리적으로 해설해주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것을 다시금 가슴속에 깊이 새긴 농장원들은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일 불타는 마음을 안고 당면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최향룡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만리마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국가과학원에서

신심드높이 첨단을 돌파해간다

생물공학분원에서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이 첨단수준의 과학기술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100(2011)년 1월 이곳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찾으시여 그윽하게 갖추어진 각종 첨단설비들과 새로 개발된 생물공학제품들을 보시고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때시면서 나라의 생물공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심장으로 새겨안은 원장 허광춘동무를 비롯한 생물공학분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통쾌한 파렬구를 낼 담대한 배짱을 안고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식물유전자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염피해를 받는 농경지들에서도 정상생육과 안전한 생산성을 보장할수 있는 내염성벼품종을 새로 육성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장 안정수, 실장 김천일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염피해를 받는 농경지들에 적합한 내염성벼품종들을 육성해내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였다.

이들은 연구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물의 특성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하여 소출이 높고 품질이 좋은 농작물품종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자한자 되새겨보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 하여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는 내염성벼품종과 함께 청천강이남지역에서 박막을 리용하지 않고 벼모를 자래울수 있는 내한성벼품종과 농마함량이 높은 감자품종도 새로 육성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식물조직배양연구소 소장 홍희정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식물조직배양기술로 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확립한데 이어 지난기간 100여만그루의 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를 생산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보내줌으로써 우리 조국을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다른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과을염소와 단미양을 비롯하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새로등판에 널리 퍼칠수 있게 비수술적인 배자이식기술과 동결정액생산기술을 개발도입하여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가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투쟁하여온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인것이다.

생물공학분원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의의가 큰 과학연구성과들도 이룩하였다.

줄기세포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난치성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줄기세포활성화제를 생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병원들에 보내주어 환자치료에 적극 리용하도록 하였다. 결과 각종 난치성질병으로 고생을 겪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맑은 초소에서 혁명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게놈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여러가지 전염병들의 근원을 밝혀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을 확정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우리 식의 생물소편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생물소편기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수준을 돌파하여 주체조선의 과학기술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명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해나가는데서 과학자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은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어린이들의 키크기에 좋은 주사약과 불치의 병치료에 효과적인 주사약을 비롯한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적극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나가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압살책동에 과감한 구를 내는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들을 개발할 뿐더러 일념을 안은 생물공학분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나날들이 있었기에 이런 알찬 열매들이 창조될수 있은것이다.

지금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더 많은 첨단과학기술성과들로 빛내입 신심에 넘쳐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박 현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현실에서 은을 내는 연구소에서

중앙광업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중앙광업연구소에서 나라의 광업부문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고품위린상흑연정광생산기술

선광공학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질좋은 흑연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고품위흑연정광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였다.

세계적으로 고품위린상흑연정광은 부유성이 좋은 흑연의 특성으로부터 주로 부유선광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 시기 여러 광산들에서는 부유선광법으로 흑연정광을 생산하였으나 흑연광석의 특성에 맞게 분쇄와 선광제품에서의 공정별지표들을 바로 정하지 못하여 정광품위가 고품위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거둠률도 낮았다.

연구사 서룡학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흑연광석의 광물학적특성을 밝힘에 기초하여 정광품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분쇄알무리함량을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흑연정광의 부유특성을 고려하여 분쇄알무리함량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거둠률을 높일수 있는 부선시약들의 첨가량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 흑연광석의 특성에 맞는 재분쇄와 정선부선공정별지표 및 조절제시약체제를 과학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실리가 보장되면서도 흑연정광품위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였다.

하여 전극과 전기솔 등 여러가지 질좋은 흑연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도입전망이 큰 공기기계식부선기

선광설비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정광거둠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16㎡공기기계식부선기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설계제작하여 정광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부선기는 광액속에 분산시킨 공기방울에 광물알갱이들만 부착시켜 띄우르게 하는 방법으로 맥석광물과 분리하는 선광설비이다.

세계적으로 선광장들에 대형화된 공기기계식부선기를 설치하여 전력소비와 설치면적, 운영비를 줄이면서 선광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연구사 리기춘, 송춘희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능력이 큰 설비들을 놓아 작은 면적에서 선광능력을 몇배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생산능률이 높은 대형화된 공기기계식부선기를 설계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들은 현장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연구사업을 완강하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마침내 수백배에 달하는 공기기계식부선기의 설계도면들을 완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전통장치들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성과적으로 제작하고 부선기의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하여 광석의 종류에 따라 공기량을 임의로 조절하면서 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는 대형화된 공기기계식부선기가 우리 식으로 훌륭히 제작완성되게 되였다.

이 공기기계식부선기를 어느 한 기업소에 도입한 결과 전력소비와 선광부지면적을 절반이상 줄이면서도 정광거둠률을 크게 높일수 있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우리 식의 광석빛선별기 개발

‖ 레이자연구소에서 ‖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룡양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광석빛선별기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광석빛선별기는 광석과 버럭의 반사스펙트르가 차이나는 특성을 리용하는 우리 식의 효률높은 선별설비이다. 이 설비는 조구통과 진동급광기, 광원, 카메라, 공업용콤퓨터, 고속전자변, 분리광석운반콘베아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석빛선별기는 광석덩어리들에 보일빛이나 방사선을 조여줄 때 광물조성에 따라 빛의 반사세기 혹은 투과세기가 서로 다르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광석과 버럭을 갈라내는 설비이다. 종전의 광석선별에는 광석과 버럭의 밀도차를 리용하는 중현탁액에 의한 선별기술이 도입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값비싼 합금철분말을 리용하고 전력소비가 크며 선별산물의 품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로 하여 널리 도입되지 못하였으며 많은 경우 광석선별은 손로동에 의존하여 왔다.

광석빛선별은 건식선별방법으로서 원가가 낮고 리론상 광석종류의 제한을 받지 않는것으로 하여 자력선별에 비해 전망이 큰것으로 인정되였지만 지난 시기에는 빛선별설비들의 수감계통의 정확도가 낮아 널리 쓰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 세기에 들어와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효률높은 광석빛선별설비들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으나 그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있다.

현대적인 광석빛선별기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레이자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룡양광산과 단천지구광업총국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이 선별기를 개발할 대담한 연구목표를 스스로 내세우고 탐구의 초행길을 헤쳐왔다.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어이 충정의 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떨쳐나선 룡양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광석빛선별기를 어떻게 하나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제작하기 위하여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합쳐나갔다.

이 과정에 김금용, 김성진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인것으로 하여 참고할만한 한 자료가 별로 없는 조건에서도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으로 광석빛선별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선별프로그람과 렌판장치모듈의 개발 그리고 모든 주변장치의 설계와 제작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완전히 우리 식으로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크기가 40~120㎜인 광석에 대한 처리능력이 시간당 수십톤에 달하는 현대적인 마그네사이트광석빛선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광석빛선별기는 종전의 중현탁액선별기에 비하여 운영원가가 낮고 처리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우리 식의 광석빛선별기가 개발됨으로써 광산들에서 다량채굴, 다량락광,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광석선별의 속도와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경제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또 하나의 철추를 마련한 이 무게있는 연구성과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광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얼마전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되였다.

지금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단천지구광업총국과 룡양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과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광석빛선별기의 선별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만년재보를 빛내여가는 애국자들

함흥분원 혁명사적보존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조국땅 곳곳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헌신의 자욱을 묵묵히 새겨가는 애국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것이다. 그런 애국자들가운데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제꿋한 항심으로 참된 삶을 이어가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혁명사적보존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연구과제모두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빛내이는 길과 잇닿아있기에 성스러운 이 초소에서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을 걸어가고있는것이다.

변색된 화강석의 화학세척방법을 개발한 과학자들의 투쟁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었다.

이들이 처음으로 연구사업을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였다. 그때 그들에게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도 경험도 없었다. 그야말로 초행길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설사 연구사업에 한생을 다 바친다 해도 웃으며 끝까지 걸어갈 신념의 명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갔다.

연구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석수오염을 제거하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화강석으로 슴배여드는 오염물질들은 무수히 많다. 그가운데서 일반오염물질들은 여러가지 화강석세척제들로 쉽게 제거할수 있지만 석수오염만은 오염의 근원부터 없애지 않고서는 제거할수가 없는것이다.

많은 연구사들이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기 위해 실험을 계속하였지만 그때마다 실패만 거듭하였다. 이런 나날속에 연구사업에서 아무런 전진도 없게 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신심이 없어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이들이 꼐 연구과제를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심때문이였다.

이때 연구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것은 당조직의 믿음과 기대였다. 함흥분원 당일군들은 실험에서 실패할 때마다 과학자들을 찾아와 신심도 안겨주고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었다. 과학자들이 실패속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실험에 착수할수 있도록 도와준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과학연구사업의 든든한 디딤돌로 되였다.

연구사들도 자신들을 믿고 내세워주는 당조직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빛내이는 이 길에서 잠깐도 물러설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연구사업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연구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문헌자료들을 얻기 위해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과학기술전당으로 발이 닳도록 다닌 길이 그 얼마인지 몰랐고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 실험실에서 지새운 밤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자신도 셀수 없었다. 이런 불같은 창조와 헌신의 날과 달속에 실장 김용국, 연구사 안국천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마침내 무기산에 의한 화강석세척제와 녹오염세척제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적용방법을 확립함으로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들의 퇴색을 막고 영구보존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과학기술적으로 확립하고 전국각지에 보존되여있는 수많은 구호문헌들에 도입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한귀성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 혁명전통교양의 만년재보인 종이문헌들을 영구보존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한 실장 남성진동무를 비롯하여 혁명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신들의 온넋을 깡그리 다 바쳐가는 애국자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이런 참된 과학자들이 조국의 만년재보들을 굳건히 지켜가고있기에 우리 혁명전통이 더욱 빛을 뿌리며 대를 이어 계승되는것이 아닌가.

이들은 지금도 숱절한 항심과 도덕의리를 지니고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이 수여되였다.

27일에 진행된 수여식에는 전광호내각부총리, 지식인들이 참가하였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천은주에게 원사칭호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장 박영택, 교원 리근영, 김천군명칭 음악종합대학 실장 박형섭, 국가과학원 연구사 김승남,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연구사 하경호 등에게 후보원사칭호가 수여되였다.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강좌장 김윤식,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들인 림광남, 엄기수, 실장 허명식, 교원 최영훈,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들인 유순철, 김룡주, 소장 리명국, 교원 한명국,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김광일,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들인 박동철, 김인식,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부장 리항렬, 리과대학 강좌장 박경철, 소장 홍건, 김천군명칭 음악종합대학 부총장 남상민,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홍태연, 평양교원대학 학장 박금희, 평양식료일용기술대학 학장 김경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강좌장 리성일,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홍순, 청진광산금속대학 강좌장 허하명, 국가과학원 연구사 김효, 의학연구원 연구사 류준명 등이 교수의 학직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김장해, 교원들인 차영학, 민철림, 김혜순, 실장 김정근, 연구사들인 리철호, 김철우, 문해경, 김순의, 최례순, 전정혁,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사 김승길,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들인 리성훈, 백민우, 김성철, 김윤일, 교원 정은선, 김철주사범대학 강좌장 김용호, 인민경제대학 교원들인 김영일, 최영,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들인 구정혁, 백영희, 손룡철, 교원들인 장학철, 채기호, 김명일, 한성호, 부소장 김영산, 실장 방원삼, 연구사들인 백성학, 리철산, 평양건축종합대학 부총장 정문일, 강좌장 오은경, 소장 윤군철, 교원 김정학, 평양기계종합대학 실장 김명찬, 교원들인 강영찬, 한인구,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강좌장 변재성,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강좌장 리정택, 교원 김철만, 리과대학 강좌장 윤성준, 실장 김학성, 평양외국어대학 교원들인 김화경, 우윤희, 김천군명칭 음악종합대학 강좌장 최혁, 조선체육대학 과장 김영일, 평성사범대학 학부장 김인철, 평북종합대학 박사원 원장 김광림, 원산농업종합대학 부장 리일남, 강좌장 강문수, 교원 리영준, 원산수산대학 강좌장 문정훈, 고려성균관 강좌장 최광철,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강좌장 주길집, 함흥수리동력대학 교원 한길우, 함경북도당학교 부장 김영호, 국가과학원 부국장들인 백원영, 정원룡, 책임부원 양영호, 소장 김희정, 실장들인 리성식, 조석철, 현세철, 연구사들인 김유진, 전희국, 최명근, 김광명, 서경준, 농업연구원 실장 교인혁, 연구사 김장석, 의학연구원 실장 전송선, 철도연구원 연구사 류철남, 석탄연구원 연구사 한준혁, 중앙식물원 실장 최현숙, 청류관 부원 김명심,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과장 조종철, 서성구역 장경2유치원 원장 한정옥, 평안남도인민병원 과장 김관원, 피현군 백마로동자구 부양 조만성, 강원도인민위원회 중소발전관리국 부국장 김수철, 강원도산림과학연구소 소장 리정식, 함경남도인민병원 원장 정덕영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236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1 046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녀성들은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결단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망발을 웨쳐댄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은 인류평화의 극악한 교살자이며 희세의 살인마무리인 미제양키들을 지구상에서 씨종자도 남김없이 죽탕쳐버리고야말 우리 녀성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멸적의 선언이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우리의 정의로운 위업에 감히 도전해나선 자들은 대평양건너 미국땅에 들어박혀있는 지구상 그 어디에 숨어있든 무지비한 천벌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선고한 주체조선의 노기찬 뇌성벽력이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꿈꾸는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유엔무대를 장래주먹을 휘두르는 마당으로 삼은 불망나니 트럼프놈이 우리 녀성들을 포함한 우리 인민모두를 무참히 란도질하려는 살륙망언을 공공연히 내뱉은것은 지난 세기 온 세상을 류혈참극에 몰아넣은 희세의 파쑈악당 히틀러를 무색케 하는 반인륜적광태로서 우리 공화국과 전세계녀성들과 어머니들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류의 재앙거리인 트럼프는 몸뚱이에 피가 아니라 독이 흐르는 악마의 새끼가 틀림없다.

매일같이 미친듯 한 폭언을 웨쳐 세상을 소란케 하고 남의 나라에 미싸일과 대량살륙폭탄을 퍼부어 무고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는 너털웃음을 짓는 트럼프놈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야수이다.

세계면전에서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 인민을 절멸시키겠다고 뇌까린 트럼프놈의 망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이가 갈리는것을 금할수 없는 우리 녀성들이다.

지난 세기 50년대 이 땅우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것은 너무도 행복하다고 지껄이면서 어린것들을 우리 어머니들의 품에서 강제로 떼내여 총창으로 찔러죽이고 휘발유로 불태워죽이는 등 우리 인민 수백만명을 살륙하고도 아직 모자란단 말인가.

목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가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민족의 생존자체마저 허용치 않겠다고 미쳐날뛰는 미제승냥이들을 우리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는 《인간이기를 그만둔 트럼프놈을 인간땅우에서 제명하자!》, 《희세의 불망종을 이 세상에 배설한 악모에게 저주가 있으라!》, 《수개보다 못한 놈을 뺨래방치로 때려잡아 펄펄 끓는 돼지물가마에 처넣자!》는 녀인들의 분노의 웨침이 하늘을 찌르고있다.

인간오작품 트럼프와 그 패거리들은 피에 주린 눈깔을 치뜨고 우리 조선녀성들의 서리발기상을 똑바로 보라.

오늘의 조선녀성들은 어제날 윤밀에 핀 봉선화의 신세를 한탄하던 식민지녀인들이 아니며 백주에 미국놈폭격으로 보금자리와 자식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오르는 저기 중동의 약소국녀인들은 더욱 아니다.

우리 녀성들은 주체혁명의 한 폭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며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한폭 어깨로 억세게 떠받들고있는 무적의 녀장부들이다.

절세의 천출명장께서 원쑤격멸의 명령만 내리시면 모두가 전화의 안영애, 조옥희가 되고 남강마을녀성들이 되여 판가리결전에 떨쳐나 세기를 두고 피맺힌 원한을 백배, 천배로 풀고 최후승리를 안아올 녀성영웅들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조선녀성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만 폭발해도 그 무서운 징벌의 활화산에 저주로운 미국땅이 불바다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태양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주체혁명의 폭풍속에서 강철로 벼려진 우리 녀성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가정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날뛰는 미치광이 트럼프와 미제승냥이들에게 참혹한 죽음과 파멸을 안기고야말것이다.

주체106(2017)년 9월 27일
평 양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우리 옷, 우리 옷》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피복부문 기술자, 기능공, 학생, 가정부인들이 만든 일상옷, 명절옷, 절촌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남, 녀조선옷 700여점과 남, 녀장신 50여점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2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조선옷협회 회장인 리주오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피복부문 창작가, 기술자, 기능공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주오부총리가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시대적미감을 훌륭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옷의 형식과 종류를 다양하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을 더욱 발전시킬뿐아니라 널리 보급선전하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고상하고 문명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전통적인 생활기풍이 안겨오는 옷차림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에는 우리 인민의 기호와 지향에 맞으면서도 밝고 부드러운감을 주는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 전통적인 형식을 살린 조끼, 떼자, 마고자, 탕의, 두루마기와 여러가지 갖신들이 많이 출품되여 인기를 끌었다.

이날 옷본보기공연도 있었다.

전시회기간 조선옷과 관련한 강습과 경험발표회도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청년강국의 주인,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여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만리마의 기상 떨쳐가는 미더운 청년대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건재생산대대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건재생산대대를 찾는 사람들은 대대의 전경과 현대적인 생산공정앞에서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불과 수십명의 청년들이 자재의 힘으로 단 몇해사이에 그렇듯 놀라운 전변을 가져왔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우리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아닙니까.》

대대장 서원대동무의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들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로 되게 하였는가를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몇해전 마가을 변손에 설계도면 한장을 쥐고 오늘을 향하여 첫걸음을 뗀 대대장 서원대동무와 돌격대원들.

어머니조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일을 하자고 스스로 결심하고 달라붙었지만 막상 시작하자고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가지만은 알고있었다. 난관을 이겨내며 기어이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라는것을.

하기에 그들은 한지나 다름없는 작업장에서 중요건설대상들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마감건재들의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역척스레 생산건물을 일떠세워나갔다.

이곳 돌격대원들앞에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들을 생산보장할데 대한 과업이 맡겨졌을 때였다.

그날 인민군대에서 사판장으로 복무한 서원대동무는 《절사대명단》이라고 큼직하게 쓴 종이를 생산건물벽에 붙이고 거기에 자기 이름부터 적어넣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돌격대원들은 잇달아 자리를 차고일어나 명단에 다가섰다. 정치지도원 전혁철, 참모장 림충혁, 1소대장 리명권, 2소대장 최광, 3소대장 리순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비장한 결심을 안고 《절사대명단》에 자기들의 이름을 적는 그들의 모습은 전화의 그날 돌격전을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에 수표를 하던 민청원용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정녕 그랬다.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그들의 창조투쟁은 하나부터 열까지 고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해칠수 없는 결사전이였다.

벽체우에 비닐박막으로 지붕을 얹고 강추위를 모닥불로 이겨내며 그들은 또다시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낼 마감건재생산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쉴참에 모닥불가에서 언 손을 녹이던 나어린 한 돌격대원이 어설픈 작업장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대대장동지, 앞으로 정말 여기에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터가 생기고 설비들을 팡팡 돌릴수 있을가요?》

《고생끝에 락이라는 말을 알지. 이제 보오. 그런 날이 꼭 오오. 우린 그날을 향해 이미 큰걸음을 내디디였소.》

이런 신념의 강자, 불굴의 정신력의 체현자들에 의하여 대대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수천㎡의 건물과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그 나날 서원대동무를 비롯한 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게 백절불굴의 의지를 안겨준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이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고찾으시며 청년들을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행군길을 걸음걸음 따라서며 이들은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살며 일하였다.

지금도 그들은 개척의 그 나날에 수놓아졌던 가지가지 사연들을 못 잊어 추억한다.

쉴참에 목잠에 든 순간에도 현대적인 기계가 팍 들어차고 눈무신 제품들이 산처럼 쌓이는 광경을 꿈꾸며 환성을 터치다가 벌떡 일어났던 일이며 뜻밖의 일로 설비들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설비들을 구원해내던 일, 생산건물의 층막공사를 끝내던날 《잠을 모르는 처녀》로 소문났던 한 돌격대원이 발판을 내리다말고 벽체에 기대여 잠든 모습이 너무도 가슴을 쳐 모두가 눈물을 머금으며 그의 단잠을 지켜 《버림목》이 되였던 일…

그들이 오늘 그처럼 긍지높이 지나온 나날을 뼛뼛이 돌아볼수 있는것은 바로 조국이 걸머진 짐을 하나라도 덜어 자기가 지려는 조국의 아들딸된 량심을 지키였기때문이다.

단 몇해사이에 수천㎡의 생산건물을 일떠세우고 각종 마감건재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는 힘있는 집단으로!

그들은 이렇게 만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왔다.

이런 기적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사회주의조선의 청년들만이 안아올릴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땀과 열정이 스민 창조물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 청년들의 심장속에서 울리는 이런 신념의 구호를 듣는다.

경애하는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경일

갑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서해갑문사업소 청년들

《나의 청춘이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을 드릴 때 나의 청춘은 빛날것이다. 나의 청춘은 남포갑문(당시)과 함께 영원히 기록될것이다.》

이것은 서해갑문건설장에서 영웅적최후를 마친 한 갑문건설자가 남긴 미완성수기의 한 대목이다.

얼마전 서해갑문사업소를 찾았던 우리는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수심리 날바다우에 당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운 갑문건설자들의 넋이 어떻게 꿋꿋이 이어지고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 이것이 현시기 청년들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올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은 서해갑문사업소 초급청년동맹위원회는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알려져있다.

얼마전 3호갑실 하류미닫이수문수리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무더기비가 쏟아져내리기 전에 수문수리를 다그쳐 끝내지면 미닫이수문에 쌓인 감탕을 한시바삐 제거하여야 하였다.

제거하여야 할 감탕량은 무려 수십㎥, 그것도 깊이가 수십m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였다.

초급청년동맹비서 김광남동무의 불같은 호소가 사업소청년들의 심장을 팡팡 울리였다.

《동무들, 우리 아버지세대들은 청춘시절에 당이 준 담력과 배짱으로 바다를 가로막고 갑문을 세웠소. 이제는 우리들 차례요. 우리모두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날바다우에 갑문을 일떠세운 청년건설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감탕제거작업을 와락 해제낍시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돌격대를 조직하고 감탕제거작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허리를 치는 감탕속에서 결사전을 벌리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은 수십년전 서해갑문을 일떠세우던 청년건설자들의 모습그대로였다.

어느새 날이 어두웠지만 누구도 전투장을 뜨려고 하지 않았다.

노래소리는 더욱더 우렁차게 울려퍼지였다.

…

투쟁속에 세대는 바뀌여도
성스러운 붉은기 지켜가네
…

1980년대에 갑문건설자들이 즐겨부르던 이 노래는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다 바쳐 우리 당을 변함없이 받들어갈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청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생의 젊음이 아니라 투쟁이고 위훈이 아니겠습니까.

풀분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바로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깊이 새겨진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김광남동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그들은 한주일은 걸려야 한다던 감탕제거작업을 이틀만에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된 청사와 갑문원, 남새온실과 그물우리양어장을 비롯하여 최근 몇해사이에 불과 보게 변모된 서해갑문사업소의 모습에도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이곳 청년들의 남모르는 위훈이 깃들어있음을 우리는 사업소일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 잘 알수 있었다.

그렇다. 청춘은 위훈의 불길이다.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승승장구해나가는것 아니랴.

정영철

철산봉이 자랑하는 처녀혁신자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공무분공장 굴개직장 청년작업반에서

청춘광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값높은 이 영예를 가슴에 간직하고 철산봉을 지켜가고있는 로동계급의 대오속에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공무분공장 굴개직장 청년작업반원들도 있다.

사람들은 이 청년작업반을 가리켜 처녀작업반이라고도 부른다. 작업반원들모두가 처녀들이기때문이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십여명의 처녀들로 청년작업반이 조직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처녀시절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더욱 짙어질 청춘광산의 래일에 얹고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어느날이였다. 청년작업반의 처녀들이 교장난선반을 자체로 수리하였다고 떨쳐나섰다는 소문이 공무분공장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놀랐고 다음엔 걱정했다.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갓 조직된 청년작업반의 과반수가 선반을 처음 다루어보는 처녀들이였던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작업반이 그러다가 첫달부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우려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수리단위도 아닌데 편한 고생을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처녀들은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제손으로 설비를 해체하였고 필요한 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각종 설비들에 필요한 부분품생산을 보장하면서 수리전투를 벌린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다.

시일이 흐르자 처녀들도 하나둘 지치기 시작했다.

어느날 이른새벽 누구인가 그들에게로 조용히 다가왔다. 늘 전투장에 함께 있으면서 처녀들의 손이 물세라 크림도 가져다주고 나약해질세라 힘과 용기를 주던 초급당일군이였다. 날씨도 쌀쌀한데 감기에 걸리면 안된다며 그가 품에서 꺼내놓은것은 뜻밖에도 열기가 확 풍기는 불들이였다. 그의 옷에서 풍기는 단내가 코를 찔렀다. 감동에 젖은 눈빛들이 오고갔다. …

이튿날 아침 처녀들은 늘 그러했듯이 전투시작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사적기대앞에 모였다.

바로 뜻깊은 사적기대앞에서 청년작업반을 조직했던 그들이였다.

한동안 정적이 깃들었다. 잠시후 작업반장 김금향동무가 말했다.

우리 이 사적기대앞에서 타진맹세를 잊지 말자. 철광석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 부모들의 넋과 숨결이 스민 선반을 우리의 손으로 기어이 살려내자.

최향미, 김철옥, 남명심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교대시간에는 서로 돕고 이끌며 맡은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으며 교대를 마친 다음에는 수리전투에 달라붙었다. 하여 태양절을 맞으며 당앞에 결의한대로 총정의 70일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승격였던 기대의 동음을 다시 울리고야말았다. 그 기대를 바라보며 그들은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지나온 나날이 어렵고 힘들어서만이 아니였다. 그 나날에 철산봉에 당당히 필 자리를 찾은 청춘광산의 억센 꽃으로 자라난 그들이였던것이다.

그날 무산의 로동계급은 그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했다.

철산봉에 묻혀있는 역대의 제부도 귀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값지다 한들 청춘광산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려는 처녀들의 마음에야 어이 비길수 있겠는가.

오늘도 그들은 올해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신철

청춘의 리상 고향땅에 꽃피우리

염주군 룡북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

염주군 룡북협동농장 청년분조를 찾는 사람들은 휘날리는 한복의 붉은기를 보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확실히 복중의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습니다.》

청년분조원들은 붉은기를 바라보며 고향땅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꽃피워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고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영광의 그날을 그려보기도 한다. 그처럼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들은 지난 시기 우량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 3중모범청년분조의 영예를 지니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7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콩메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던 청년분조의 포전에 어둠을 밀어내며 우등불이 활활 타올랐다. 120%, 130%, …

분조의 전투실적은 시간을 다투며 뛰여올랐지만 청년분조원들은 만족을 몰랐다.

그들속에는 며칠전부터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포전을 뜨지 않는 문옥순동무도 있었다. 분조장 서정혁동무를 비롯한 분조원들은 그를 걱정하며 좀 쉬라고 권고하군 했다.

《오늘 아침 우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명명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를 독보하지 않았나요. 나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살고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옥순동무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여있었다.

이렇듯 매일 아침 어김없이 진행하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은 청년분조원들의 가슴속에 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혁명적락관주의를 심어주었고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불굴의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는 20일 남짓한 기간에 그 면모가 완전히 일신된 청년분조합숙을 놀고도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었다.

새로 꾸린 청년학교며 정든 고향집마냥 아담한 침상들과 식탁, 번듯하게 닦아놓은 운동장과 축사…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며 용기를 내였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청춘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그들이였다. 이런 청년분조원들의 곁에는 언제나 농장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따뜻이 보살피고 떠밀어준 리성룡, 리원철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있었다.

청년분조원들은 지금 당면한 영농전투로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창조와 위훈으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될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룡북협동농장의 미더운 청년분조원들, 아름다운 삶의 지향을 간직하고 청춘의 패기와 열정을 한껏 떨치며 그들은 오늘도 청춘의 리상을 고향땅에 꽃피워가고있다.

김국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간다.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에서— 김광림 찍음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판이한 두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남이 없는 내 나라,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이것은 집단주의가 사회적기초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또 하나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화창한 봄날에 온갖 꽃이 다투어 피여나듯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숭고한 미덕이 날을 따라 꽃펴나고있다.

지난 8월 특류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기로 한 청춘남녀들의 소행이 또다시 알려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반신이 마비된 특류영예군인 리성민동무의 일생의 동반자가 되여준 삼천군 삼천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부원 홍은주동무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 우리 시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했을뿐입니다.》

소박한 그의 말속에는 숭고한 미덕을 지닌 우리 사회 인간들의 모습이 비껴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한 미덕을 꽃피워가는것이 평범한 사실로 되고있다.

《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애 대신 구원해낸 처녀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인가 뜻하지 않게 물에 빠진 두 처녀애중 다른 소녀를 먼저 구원하고 자기 딸을 잃은 수산부문의 어느 한 일군이 자기를 위로하는 이웃들에게 한 말이다.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숭고하고 돈보이는것인가.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서는 이렇듯 자기가 바칠수 있는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미덕이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이 얼마나 많은가.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동지들을 구원한 영웅들과 무모함은 아이들의 친혈육이 되여준 《처녀어머니》들, 외진 산골학교와 섬분교의 교원으로 탄원해가는 대학졸업생들…

하기에 이런 미덕이 만발하는 우리 사회를 두고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은 아름다운 인간향기가 진동하는 사회》라고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살고있는 자본주의사회는 《악취가 풍기는 혐오스러운 사회》라고 말하였다.

온갖 사회악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속에서 하루해가 지무는것이 《문명》과 《인권》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극단한 개인주의를 정신적, 도덕적기초로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오늘 남편이 안해를, 자식이 부모를,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것과 잔혹무시한 살인범죄들이 례상사로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미국 알바스카주의 동남부앞바다를 항행하던 려객선에서는 남편이 생트집을 걸어 자기 안해를 때려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이다. 일생을 약속하고 함께 생활하는 반려자를 별치않은 구실로 무참히 때려죽였다는것은 미국사회가 얼마나 썩고 병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다반사로 되고있다.

미국 시카고시에서는 지난 4월 30대 청년이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는 리유로 자기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구타하여 그자리에서 숨지게 하였다.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사는 한 부부는 자기 자식을 서슴없이 목놓라죽였다.

살인동기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학비난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 없게 되였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친부모를 살인자로 전락시키는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사회제도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일단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 지배되면 자식과 부모친척도 서슴없이 란도질하고 죽이는것이 극도로 타락하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일반실태이다.

지난해 일본 후꾸오까현에서 41살 난 한 녀성이 전기줄로 6살밖에 안되는 딸의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도꾜에서는 15살 난 녀학생이 잠을 자고있던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수건으로 목을 졸라죽이였고 아시아시에서는 한 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목에 칼을 박아 처참히 살해하였으며 하마마쯔시에서는 한 남성이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 누이를 칼로 찔러죽이고 아버지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오직 개인의 리익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썩을대로 썩은 도덕적가치관은 이처럼 육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사회의 말단단위인 가정의 륜리까지 혹심하게 파괴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적가치관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에 놓고 세워진 견해와 관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것이 진리이고 개인의 리익을 보장하는것이 행동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 도덕관념이 자본주의사회를 지배하고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들덩이처럼 굳어져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도덕적가치관은 전쟁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의 친혈육, 안해가 되여주고 자기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지들을 구원해낸 우리 사회 인간들의 집단주의적인생관과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가.

사랑과 증오의 판이한 두 현실은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락원이라면 자본주의는 인권의 불모지, 약육강식의 사람 못살 세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이런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는것이며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본사기자 신현규

고소장에 서린 원한

《나는 일본 아끼다현 오다무라병원 원장놈의 극악한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이것은 수십년전에 일본에서 조국으로 귀국한 녀성이 함흥정형외과병원에서 쓴 고소장의 한 대목이다.

태여나 몇해만에 불수염으로 불구가 되였던 이 녀성이 많은 빚을 내여 수술을 잘한다는 오다무라병원에 입원한것은 13살 나던 해였다.

그런데 병원원장놈이 어린 조선소녀를 희생시켜 돈벌이할 흉계를 꾸밀줄이야 어떻게 짐작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이자는 그의 성성한 무릎뼈를 까내여 돈많은 놈에게 이식해주고도 성차지 않아 그의 다리를 펴느라고 값비싼 못을 특별히 박아넣었다고 뇌까리면서 거액의 《수술비》를 더 요구하였다.

순박한 그의 부모는 엄청난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원장놈의 요구대로 어린 딸을 놈의 집 아이보개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

풍화국의 품에 안겨 치료를 받으며 이 녀성은 원장놈의 《수술》내막을 알게 되였다.

조국에서 보낸 치료의 나날 그는 친혈육보다 더 뜨거운 사랑들을 알게 되였다. 의료일군들의 방조속에 우리 글도 배우게 되였다.

그는 병원에서 처음 익힌 글로 고소장을 썼다. 어머니조국에서 새 삶을 받아안고 쓴 한 녀인의 고소장, 그것은 매를때려 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를 규탄하는 고발장이였다.

본사기자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미제야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성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10.4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한

북, 남, 해외 공동호소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담은 10.4선언이 발표된지 10돐이 되였다.

10.4선언은 력사적인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적, 제도적장벽을 해소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고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천명한 겨레의 소중한 전취물이다.

10.4선언이 제대로 리행되였다면 우리 겨레가 북과 남을 오가며 이룩한 민족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번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게 되였을것이며 우리 겨레는 이미 조국통일의 문어구에 들어섰을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으며 해내외의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올린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소중한 성과들은 처참하게 짓밟히고말았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움직임과 북남공동선언을 외면한 저페《정권》의 민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의 전면단절은 물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도 날로 고조되였다.

대규모의 초불항쟁으로 남쪽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이전 《정부》들이 추구해온 민족분렬, 대결정책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길은 여전히 막막해있다.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10돐이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단절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가 극한점에 달한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측위원회는 고조된 핵전쟁위험을 막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북남사이의 호상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통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며 분렬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장벽을 없애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최근 북의 전연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사용을 공공연히 떠벌이는 미국집권자 트럼프의 망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모욕이고 훼손이다.

겨레의 운명과 리익을 외세에 내맡겨서는 결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없다.

수십년간 이 땅에 또아리를 틀고앉아온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쟁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민족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 민족구성원모두가 자기 운명의 주인, 주권과 평화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함께 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7년 9월 27일

주권국가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

지역기구와 나이제리아의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를 공공연히 떠벌인 트럼프의 망언을 규탄하여 지역기구와 나이제리아의 정당, 단체들이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접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법이라고 하면서 전쟁광신자인 트럼프의 망발은 조선의 자위적 국방력강화를 막지 못해 안달이 난데로부터 나오는 단말마적인 울부짖음이라고 조소하였다.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은 주권국가의 생존자체를 부정하는 《완전파괴》라는 력대 그 어느 대통령도 감히 말한적이 없는 폭언을 줴쳐댄 트럼프의 망언은 주권국가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인륜도덕에 대한 란폭한 범죄이라고 락인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는 련합성명에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조선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며 조선을 없애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를 단행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자가 유엔무대에서 제친 망발을 통하여 트럼프의 지적수준은 돌에치고 이러한 정신병자를 국가의 최고통수권자로 내세운 미국의 지성과 문명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유엔력사에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리해관계가 차이나는 나라들사이의 자극적인 비난과 위협적인 《권고》는 있었으나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반인륜적언사를 망랑 내뱉은 무모한 국가지도자는 없었다.

미국은 트럼프의 망발이 저들의 완전멸망을 재촉하는 화근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망발을 정의와 량심, 평화와 안전에 대한 파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이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것을 권고한다.

【조선중앙통신】

정의와 인권을 유린한 조직적범죄행위

《유신》독재자의 후예이며 희세의 파쑈폭군인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집권기간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을 작성해놓고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패당은 《정권안보》를 피하면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8 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을 요시찰명단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갖은 박해와 탄압을 가하였다. 박근혜《정권》시기의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은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며 파쑈독재통치에 미쳐날뛴 역적패당의 용납 못할 죄악을 낱낱이 폭로해주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에서 극악한 파쑈폭압범죄,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락인된 박근혜《정권》시기의 문화예술인탄압만행을 릉가하는 험악한 사건이 리명박《정권》시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론화되면서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리명박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문화예술계의 《좌파척결》을 떠들면서 《국악원》 원장, 현대미술관 관장,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진보적경향의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소동을 벌려놓았다. 그리고 민족예술인총련합, 독립영화협회 등에 《좌파세력의 근거지》라는 딱지를 붙이고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비렬한 방법으로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그뿐이 아니다. 리명박패당은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들에 반《정부》시위에 참가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에 수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반《정부》투쟁을 사전에 봉쇄하고 그들의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유린하는 극악한 파쑈적망동이였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리명박역도가 진보적경향의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괴뢰정보원을 동원하여 요시찰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비렬한 어론공작놀음까지 벌린 사실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괴뢰정보원은 리명박일당의 지령에 따라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요시찰명단에 올려놓고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특별조직》이라는것까지 운영하였다. 최근 리명박《정권》시기 괴뢰정보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이 공개되였다.

괴뢰정보원의 심리진단테거리들은 요시찰명단에 오른 진보적인 문화예술계인사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심산밑에 나중에는 추잡한 합성사진들까지 만들어 류포시키였다. 이런 더절한 음모책동에 직접 가담한 괴뢰정보원 직원이 며칠전 검찰에 구속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각계에서는 리명박패당이 집권시기에 저지른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이러한 속에 현 《정권》의 등장이후 처음으로 되는 《국정감사》가 집권기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만행 등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은 리명박역도에 대한 《감사》로 될것이라는 언론보도들이 나돌고있다.

당황망조한 리명박패당은 저들의 죄악에 대해 아닌보살을 하고있다. 문화예술인탄압사건이 청와대의 지령에 따른 조직적인 범죄라는것이 명백히 까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대통령〉직은 그런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관련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범죄자들의 파렴치한 발뺌질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뻔뻔함의 극치》, 《최대의 사기군》, 《천하의 악당》, 《그렇게 바쁘다면서 합성사진이나 만들어 류포시키는가?》 등으로 비난하면서 리명박역도를 당장 구속수사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은 괴뢰보수패당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박근혜역도의 범죄에 이어 또다시 폭로된 리명박역도의 문화예술인탄압만행은 괴뢰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여지없이 짓밟으며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파쑈광들로서 력사의 무덤속에 하루속히 처박아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사회적정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 민심에 역행하고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극악한 파쑈독재세력인 괴뢰보수패당을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고 범죄자들은 징벌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엄수련

그 어떤 제재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우리의 장쾌한 핵뢰성과 련속적인 대미초강경공세에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제재책동을 강화하면서 미친듯이 혈떙비고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사상 류례없는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은 제재를 올리면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것이라고 궤변치고있다.

미국상전의 반공화국제재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리고있는 괴뢰들도 유엔의 새로운 《제재결의》가 《상당한 압박효과》를 낼것이며 《강한 고통을 체감》하게 될것이라는 가소로운 나발을 불어대면서 무슨 큰일이나 천것처럼 부산을 떨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이 제재압박으로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는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괴뢰들이 반공화국제재에 기대를 걸며 그 무슨 《초강도대북제재》에 대해 피대를 돋구고있는것은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진영내부에서는 그 어떤 《대북제재》로써도 《북핵제기》를 실현할수 없다는 《제재무용론》이 널리 퍼지고있다. 급속도로 고도화되고있는 주체조선의 핵억제력에 기절초풍한 적대세력들속에서 《제재는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비명이 연방 터져나오고있다.

미국회의 온건파들은 물론 대조선강경파로 알려진 보수계인물들도 《제재가 우리가 바라던대로 통하지 않고있음이 명백해졌다.》, 《북은 유엔의 제재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강한 언급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있다. 미국의 전직고위관리들도 트럼프행정부가 《북핵문제》를 제재와 압박으로 풀려고 하지만 20여년간의 조미혈대결력사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도저히 먹혀들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면서 《그 어떤 강도높은 제재로도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은 력대 미행정부들이 써볼대로 써보다가 절벽에 부딪쳐 이마빡만 깨진 실패작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제재와 압박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려왔다. 력악관의 주인들은 계속 달라졌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공화국제재압박의 도수는 나날이 높아졌다. 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북핵포기》를 위한 《전략적인내》정책을 들고나와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살의 포위망을 조이면서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특히 늙다리전쟁미치광이인 트럼프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사상최악의 대조선정책을 고안해내고 집권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초강도제재》놀음에 광분해왔다. 하지만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발광적인 반공화국제재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은 급속히 강화되고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우리는 조미대결전에서 련속 통쾌홀을 부르며 미국을 걷잡을수 없는 수세에 몰아넣었다. 지난해 1월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비롯하여 우리의 국방공업발전에서 다제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에도 만만년민족사에 특기할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대승리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특대사변이 일어났다. 얼마전에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발사훈련을 또다시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혼비백산케 하였다.

미국이 수십년세월 《북핵폐기》를 실현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며 우리에 대한 제재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위적핵억제력강화의 길로 더욱 떠밀었다. 이제는 태평양작전지대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미본토까지도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게 되였다.

결국 미국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저들의 힘만 빼는 어리석은 놀음을 벌려온것이다. 미국에서 그 어떤 강도높은 제재로도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지만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지금 서방언론들과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제재소동과 관련하여 《대조선제재는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조선은 국제적인 제재에 아예 신경쓰지 않는다.》, 《놀라운것은 자기 정권에 대한 조선인민의 사랑과 열정이다.》, 《조선은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주민들의 열화같은 지지로 이를 극복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상 류례없는 제재를 받는 극악한 조건속에서도 어떻게 되여 날로 더욱 강대해지고있는가에 대한 옳은 평가라고 해야 할것이다. 바로 우리의 힘은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이다.

우리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결코 순탄한 환경속에서나 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자기 힘만 믿고 싸워나간다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철리로 새겨안은 우리 인민은 적들이 제재압살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일심단결의 기상을 더욱 높이 떨치며 자력자강의 마치로 이 땅에 창조와 건설의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고있다.

핵무기보다 강한 우리의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앞에 적대세력의 그 어떤 제재도 불거품신세를 면할수 없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반공화국제재의 광풍이 사나와질수록 이 땅에서는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힘이 더욱 거세게 폭발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상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무지막지한자들은 기필코 참패를 면치 못하는 법이다.

간고한 투쟁을 거쳐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있는 우리가 원쑤들의 제재소동이 더욱 악착해진다고 하여 흔들리거나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남조선의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전환할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해나서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에 대한 《제재만능론》이 어찌하여 《제재무용론》으로 뒤바뀌고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제재압박에 미쳐날렬수록 우리는 국가핵무력강화의 최종목표달성에 총력을 집중하게 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대세에 역행하여 반공화국제재소동에 광분하는것이 저들자신의 종국적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라설하

여러 나라에서

미국집권자의 망발을 단호히 규탄, 항의시위 전개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떠벌인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이 방글라데슈, 로씨야의 정당, 단체들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방글라데슈군정치연구소조,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다카에서는 집회가 진행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까마귀카 얼두빈 울어도 까욱소리뿐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하여 자기의 광태가 어기에 꼭 들어맞는다는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를 궤변한 트럼프의 폭언에 온 국제사회가 아연실색하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분별력과 참을성을 잃게 하는 광언이다.

트럼프가 우리를 겨냥한 폭언으로 세인을 경악케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화염과 분노》,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에서 죽음이 나는것이지 미본토에서 나지는 않을것이다.》와 같은 미친 폭언들을 거리낌없이 줴쳐댔다. 그때마다 우리는 늙다리의 망언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 트럼프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천하무도한 망발을 그것도 다름아닌 유엔총회마당에서 함부로 쏟아냈다.

미국대통령들치고 우리 국가에 대해 헐뜯지 않은자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내뱉은것과 같은 광언은 력대 어느 집권자에게서도 들어볼수 없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의 유모아를 기억하고있을것이다.

《머리를 가져다대면 그 사람의 지능지수를 알아맞히는 기계장치가 있었다. 어느날 부쉬가 자기의 지능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장치에 머리를 가져다대자 장치와 련결된 화면에는 〈돌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됩니다.〉라는 경고가 현시되였다.》

이것은 집권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악행과 협담만을 일삼다못해 우리 국가를 《악의 축》이라고 헐뜯었던 전 미국대통령 부쉬를 풍자한 유모아이다. 그러나 지능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부쉬도 조선에 대해 《완전파괴》와 같은 악담은 감히 내뱉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는 저능아, 전쟁미치광이로 악명떨친 부쉬를 훨씬 릉가하는 정신병자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못나기 그지없는 트럼프는 정치에 대한 초보적인 견해도 외교상식도 없는 《정치문외한》이다.

유엔총회라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무대이다. 때문에 표현 하나를 써도, 행동을 해도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는 자기의 사무실과 골프장에서 늘 해먹던 본때로 유엔무대를 어지럽혀놓았다.

오죽 난감했으면 현장에서 연설을 듣던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겠는가.

두꺼비는 옥좌에 앉혀도 시궁창에만 뛰여드는 법이다. 트럼프는 인간고유의 륜리도덕이 사멸된 부동산시장에서 남을 등쳐먹는데 이골이 나서 미쳐날뛰던 불망나니, 깡패였다.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그 추악한 본골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트럼프는 이번에 자기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못 갖춘 《정치이단아》, 정신병자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부동산업에서는 미치광이기질이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늙다리미치광이를 계속 그대로 놔두면 이 행성에 어떤 상상할수 없는 참혹한 재난을 들씌울지 모른다.

트럼프의 광태는 곧 미국의 광태이다.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서라도 저들의 지배주의적야욕을 한사코 실현해보겠다는 승냥이본성의 로골적인 발로이다.

피를 즐기는 승냥이, 불을 즐기는 날강도 미국은 반드시 불로 다스려야 한다. 추호도 사정을 보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망발을 통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사태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깨달고있다.

박예경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미치광이

인종주의자의 흉악한 정체

얼마전 트럼프가 미국에 어렸을 때 불법적으로 들어온 근 80만명의 젊은 이주민들을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폐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이제부터 이주민들의 로동허가를 위한 새 신청서들을 접수하지 않으며 현재의 모든 로동허가증은 앞으로 2년동안만 유효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어린이도착유예행동으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전 미행정부시기 대통령 오바마가 발기한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속에서 몸값을 올려보려는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기만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오바마의것이라면 덮어놓고 부정해온 트럼프가 지금에 와서 빈껍데기뿐인 이 계획마저도 쓰레기통에 처넣으려 하고있는것이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미국내의 안보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할 목적밑에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국내안전성이 직접 계획폐지사업을 맡아하게 될것이다라고 떠벌이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즉시적인 폐지가 아니라 점차적인 과정으로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취한 이번 조치는 즉시 국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주민들에 대한 극도의 차별과 적대감의 표현이였기때문이다.

미국 시카고시의 중심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떨쳐나와 집회를 열고 이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시위자들은 《인종주의자들을 추방하라》, 《지향, 단합, 존중》이라는 글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항의행진을 단행하였다.

트럼프가 인종배타주의적망동을 부린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선거전을 벌릴 때부터 여러차례나 흑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거리낌없이 내뱉아 커다란 불의를 일으켰다. 미국정계에서도 이러한 트럼프를 놓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만들기는커녕 도리여 미국인들끼리 서로 증오하게 할 인물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실지로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리비아, 수단을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여러 나라 사람들의 미국입국을 90일간 불허하고 피난민수용을 120일간 중단한다는 이주민판련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주민들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메히꼬와의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트럼프의 극단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반이주민정책으로 하여 의지가지할데 없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추방되였다. 지어 철부지어린이들까지 쇠고랑을 차고 본국으로 강제송환되였다. 그들대부분은 세계도처에서 무분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침략과 분렬리간책동의 희생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는 이 모든것이 미국인들의 안전과 일자리조성을 위해서라고 횡설수설해대고있다.

이주민들을 《테로분자》, 《도적》과 같은 범죄자로 취급하고있는 트럼프의 인종주의적인 망발과 그릇된 정책이 국제사회의 강한 분노를 자아내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지난 8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샬러츠빌에서 백인지상주의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군중들사이에 폭력적인 충돌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트럼프는 량측에 다 책임이 있다고 얼버무리면서 사태의 본질을 외곡하려고 하였다. 트럼프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것은 사실상 백인지상주의자들의 망동을 비호두둔해주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것이다.

날이 갈수록 극악한 인종주의자로서의 트럼프의 범죄적정체는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세계는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면서 트럼프가 목에 피대를 돋구며 제창한 《미국제일주의》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인종간 갈등과 모순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미국에서 대통령부터가 인종주의를 고취하며 분별없이 놀아대고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불보듯 뻔하다. 대다수의 정세분석가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있는 미국사회의 극심한 분렬현상이 그대로 미국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

로씨야외무성 미국의 대조선제재책동 배격

로씨야외무성 전파망지 및 군비통제문제담당 국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에 대한 제재강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부질없는노릇이며 무능력의 발현이라고 하면서 그는 제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미국이 제재압박에만 의지하는것은 창발적인 중대한 결정이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상의 정우를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는 자기의 나약성과 무능력을 인정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인종차별행위를 종식시킬것을 호소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20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차별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공동체가 이스라엘과 같은 인종주의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 도미니카에서 18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시속 260㎞의 태풍으로 15명이 목숨을 잃고 약 20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통신망이 두절되고 교통이 마비되였으며 많은 물질적손실이 났다.

- 중국에서 올해에 들어와 8월까지 2 84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그로 하여 44명이 목숨을 잃고 2만 3 000㏊의 산림이 불타버렸다.

- 브라질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있다. 11일에 일어난 산불로 19일현재 1만 5 000㏊의 산림이 불타버렸다.

현지에서 진화작업이 진행되고있다.

- 민주콩고의 동부지역에서 19일 큰물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고있다.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 20일현재 12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120여세대이상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앞으로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현지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71153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